

2019년 8월 23일(금)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1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보라
- 2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 3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 4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 후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8월 24일(토) 기도 담당 : 전해용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02장 다 같 이

기 도 안강현 집사

성 경 봉 독 민수기 20:1~13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불평하는 자와 가감 없는 순종을 놓친 자의 결국』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민수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8월 20일(화)	민 17:12-18:7	이 백성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8월 22일(목)	민 18:8-24	영적 레위인의 기업을 되시는 하나님
8월 23일(금)	민 20:1-13	불평하는 자와 가감 없는 순종을 놓친 자의 결국

<광고>

9월부터 새벽기도회(오전5시)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은 자원 부탁드립니다.
격주로 반주를 합니다. (문의: 010-6403-2441)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8월 23일(금)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의 뜻 안에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매 순간을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불평과 원망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음과 입술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불평의 말을 멀리하며 인위적인 순종의 길에서 떠나 복된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130여년의 긴 역사동안 새문안교회를 신실하게 돌보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예배당의 건축과 입당을 허락하신 은혜 그대로 앞으로도 새문안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두시며 이끌어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키시며, 주님 뜻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돌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공의와 진리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온전히 펼쳐주셔서 남북이 주님 뜻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되는 날을 열어주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시키시고 일본의 경제제재가 사라지게 하셔서 평화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과 번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과 암 투병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